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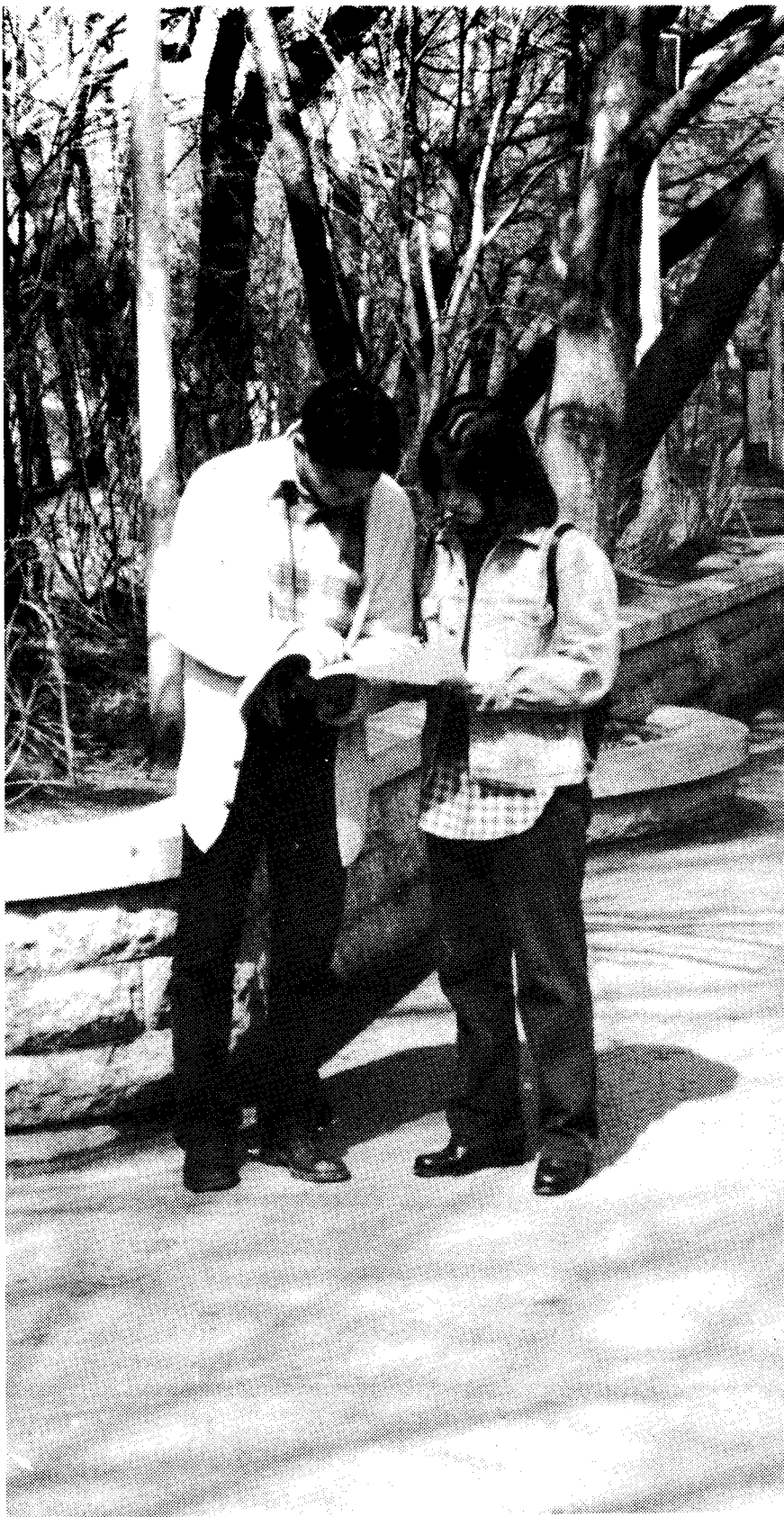
□ 신입생 대상 사기강매행각 예방책

'인적사항 절대 알려주지 마라'

어느덧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저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학기는 재학생은 물론 입학한 신입생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나 갓 입학한 신입생에게 닥치는 시련 중의 하나가 사기강매행각이다. 아직 학교생활에 익숙치 않은 신입생에게 접근해 꼭 필요한 것들이라며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게 하는 등 피해사례가 개강 이후

속출할 것이다. 우리학교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는 학생이 3월 한달간 50여명에 이른다는 자료가 말해주고 있듯이 사기강매행각은 신입생들의 건강하고 힘차게 할 첫 걸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이러한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서 판매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 보았다.

(편집자)



▲화내에 지나다니는 신입생은 강매의 표적이 된다

어학교재판매 빙자 사기강매 많고 최근들어 사회적 추세에 따라서 자격증교재관련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3학년으로 진학한 태모양은 2년 전 자신이 신입생때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를 친다. 95년 3월 신입생인 태양은 학교로 찾아온 영어교재 판매원의 말을 듣고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영어강의를 듣기 위해 회원에 가입했다. 그러나 강의에 대해서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3월말 교재가 배달되어 전화로 해약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교육원 측은 위약금을 내라며 2회분의 교재가 다시 배달되었다. 결국 태양은 교재중 2회분 2만원을 지급하고 강의는 듣지 못하게 되었다.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은 대학이라는 사회에 대한 낯설음 때문에 태양과 같은 사기강매를 당하기 쉽다. 특히 각 대학의 입학시기인 요즘 사회적응력이 미숙한 신입생(대부분 미성년자)을 대상으로 한 피해사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2백16건 중 46%인 95건을 차지한다. 피해대부분이 어학교재 판매를 빙자한 사기강매가 많으며 최근들어서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자격증 교재에 관련된 사례도 증가추세에 있다.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5가지가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입학식이나 입학이후 강의실에서 선배를 사칭하여 동아리 회원 또는 스타디움 가입신청서를 쓰게 한 후, 교재와 대금청구서를 집으로 우송하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자격증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준다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교재와 지도용지가 집으로 배달되는 사례가 있다. 세번째로는 강의를 해준다고 하여 회원에 가입을 했으나 강의는 해주지 않고 교재만 우송해와 취소할 요구하니 위약금을 내라는 경우, 네 번째는 설문조사를 해달라 하여 응해주었는데 대금청구서가 집으로 배달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학교뿐만 아니라 노상에서도 설문조사 및 독서제동차원의 무료 배포라고 현혹하여 봉고차 등으로 유인후 계약서에 강제적으로 서명케 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의 경우는 학생들이 신뢰하기 쉬운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상품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대학신입생의 경우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교재를 구입한 후 교재대금 납부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상태에 놓여진다. 그러나 판매업자들은 부모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해도 불응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제시하여 계약이행을 강요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계약서 미교부시 1년이하 지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으며, 청약철회등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학교안으로 들어오는 상인들을 막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측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중앙대자보판에 약 10면 정도의 대자보를 붙여 신입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예정이며 수원캠퍼스는 각 단대 학과장에게 공문을 보내어 신입생들에게 주의를 시킬 계획이다. 또한 학생회측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입생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인데 수원캠퍼스 학생회는 작년 어학강좌 사기 사건 때문에 예년에 비해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가급적 자체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교와 학생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신입생들 자신이 외관원의 상술에 의해 중동구매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사기강매의 피해예방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박승현 팀장은 "외관원이나 방문판매원은 물론 학교 선배나 공공기관원 신분을 보여주며 설문조사, 안내문 무료발송 등의 경우 일단 의심하고 본인의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한다. (이택근 기자)

사기행각 법정 보상 가능

해약통보 10일 이내해야 유효

법인허가 없는 회사제품 보상불가

대학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행각은 신입생들이 대부분 법적으로 미성년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입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상품을 계약했을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 1부를 받아두며 외관원의 신분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중동구매라 생각될 경우 10일 이내 서면으로 물품판매처에 해약통보를 발송하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또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이 없는 경우 철회기간이 경과되어도 부모의 권한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이때

도 구입사실을 아는 즉시 해약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한다.

해약통보서는 소비자 본인(미성년의 경우 부모명)을 함께 표시)과 수신인인 사업자의 이름, 주소를 밝힌 후 구입과정과 해약사유를 기재한다. 그리고 날인을 하여 우체국의 내용증명 창구를 통해 발송한다. 한 통은 소비자가 보관하고 또 한 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한 통을 판매처에 발송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한국소비자보호원(709-3699)에 통보하면 작성 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도 상품을 판매한 회사가 법적으로서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회부)

▲사기행각 피해발생시기

기간(월)	어학교재	자격증교재	계	비율(%)
1	9	1	10	4.6
2	10	4	14	6.5
3	37	58	95	44.0
4	19	18	37	17.1
5	10	11	21	9.7
6	9	1	10	4.6
7	1	1	2	0.9
8	3	1	4	1.9
9	2	1	3	1.4
10	4	1	5	2.3
11	7	1	8	3.7
12	7	1	8	3.7
계	118	98	216	100.0

한국소비자보호원 제공

(단위: 월/년)

신학기 외국어강좌 마련

서울캠퍼스 영어회화 6개반 개설

우리학교 언어교육연구원 및 인권복지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97학년도에도 학생들을 위한 외국어 강좌를 마련해 놓고 있다.

먼저 서울캠퍼스 언어교육연구원(LERI)은 영어회화, 영작문, 영어청취(L/C), 프랑스어, TOEIC, TOEFL, TOEFL L/C, AFKN청취, 일본어, 중국어 강좌를 마련, 운영한다.

초급에서 중급까지 총 6개반을 개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하는 영어회화의 수강료는 14만원이며, 그 외 강좌도 여러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강료는 6만원에서 9만원까지 다양하다.

수원캠퍼스 언어교육연구원 역시 개설한 이래 처음으로 오는 3월17일 강좌를 개설하는데 모집 대상은 본교 재학생 및

일반인으로 서울캠퍼스와 동일하며 접수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이다.

수원캠퍼스 언어교육연구원에서는 행해 질 강좌내용 및 수강료는 서울 캠퍼스와 유사하며 색다른 강좌로는 'JPT 일본어 능력시험'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일본어 문자어휘 및 문자독해를 주로 하는 이 강좌의 정원은 30명이며 수강료는 8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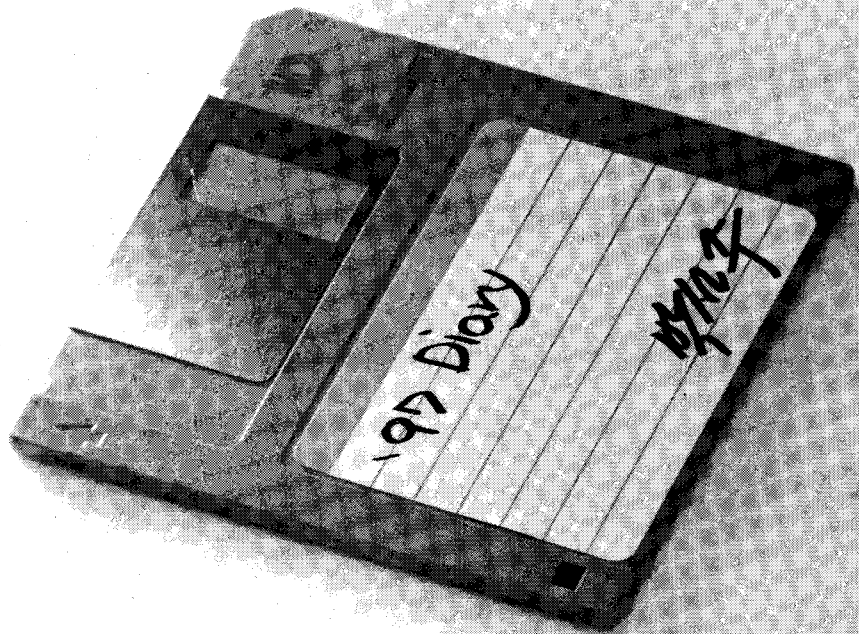
또한 각 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예년과 유사한 형태로 어학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수원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는 3월10일부터 3개월간 Exploring English라는 교재로 강좌를 개설하는데 1주단위로 총 8주간 주제를 달리해가면서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남이 기자)

주	회	주	제	내
1	Chapter 1 (p1~p17)	주	제	내
2	Chapter 2 (p18~p34)	주	제	내
3	Chapter 3 (p35~p54)	주	제	내
4	Chapter 4 (p55~p68)	주	제	내

▲Exploring English 1권 과정
(수원캠퍼스 학부위 추천)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펜은 Keyboard보다 향기롭다"



깊은 밤, 커피 한잔을 준비해 두고 하루를 돌아보듯 펼쳐드는 일기장. 하얀 일기장을 한줄 한줄 채워가는 동안 방안 가득 커피향이 퍼지고 그렇게 하루가 마감되어 갑니다.

문득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싶을 때 빛바랜 일기장을 꺼내두고 한장 한장 넘겨보는 느낌은 분명, 커피 한잔없이 컴퓨터에 써대려간 일기와는 다를 테지요.

한잔의 커피로 충만해지는 생활, 동서식품이 가꿔갑니다.

향기로온 생활문화를 동서식품이 이끌어갑니다

- 동서 커피문양상 ●「맥심배」 생활체육 전국스키대회
- 동서음식제 ●동서 장학회 설립, 운영
- 국군 부대 자매 결연

동서식품